

2016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2.26(금) 14:00~15: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제고하고 차별성 확보해야

- 12일 '뉴스 19', '뉴스 20' 12일 중력파검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음. 아인슈타인이 중력파의 존재를 제기한 후 101년 만의 일이며,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미국 등 15개국 80여개 기관 1,000여명이 참여하여 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KGWG)을 구성하고 2009년부터 서울대, 부산대 등 5개 대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20여명이 공동 참여해왔음. 금년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이며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 뉴스는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음. 당일 '연합뉴스 20'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했지만, 이에 더하여 다른 시간대에도 주요 뉴스로 소개되고 또한 스크롤 자막뉴스로 계속 소개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고 생각됨(김상선 위원)
- 6일 '뉴스22' '나라슈퍼' 강도치사, 17년 만에 진범 밝혀나 내용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조명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호사가 출연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옴. 특히 미성년자이거나 지적 장애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더 세심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함. 수사당국의 빈틈없는 수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지음. 다만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함(정현주 위원)
- 부모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희망적이고 감동을 주는 밝은 내용의 뉴스도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들을 하는 친부모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대책까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관련 심층보도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음(김용직 위원)
- 날씨정보는 중소기업에서는 매출 등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기상정보를 세세히 깊이 있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박동민 위원)
- 연합뉴스TV 가 선택한 스트레이트 중심의 차별한 뉴스 전달방식을 좋은 관점에서 보고 있음. 일부 자극적 패널이 등장하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요소를 축소해서 연합의 속보 중심 보도 철학을 전략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이재경 위원)
- 연합뉴스TV는 기자 리포트에서 취재기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인력부

족 때문이라고 짐작하지만 그래도 주요뉴스 경우, 리포트 하는 기자의 얼굴을 드러내 주는 것이 텔레비전 매체의 차별적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함(이재경 위원)

▲ 화면구성 등 개선필요

-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화면이 오래된 옛날 화면일 경우가 있음. 출처와 시기 등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이태식 위원장)
- 타사 프로그램과 비교해가며 시청해보고 있음. 방송 진행시 뒷배경 보도국 전경 화면이 어두움. 보도국을 배경으로 방송을 진행 할 시에는 조금 더 밝게 조정해 주면 좋겠음(신현택 부위원장)
- 뉴스 화면 구성과 관련하여, 오른쪽 상단 연합뉴스TV, 메인 화면, 아래 큰 글씨 자막뉴스, 아래 스크롤 자막뉴스, 좌측하단의 연합뉴스 TV 표시 엠블럼 회전에 더하여, 좌측 상단에 자막, 특히 스크롤 형태의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젊은 층을 제외한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좌측 상단에 제공되는 자막(보통 장면 설명) 제공, 특히 스크롤 형태의 자막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김상선 위원)
- 9일 오후 11시 24분 가출엄마 찾는 9세 아들 비닐봉지로 살해 내용과 44분 기혼녀 90% 산후우울증 경험 내용은 두 뉴스의 자료 화면으로 정신과에서 상담 받는 장면으로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화면이 나옴. 뉴스와 걸맞는 화면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나 바로 얼마 후의 뉴스에 동일한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피했으면 함(정현주 위원)
- 영상처리를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뉴스에서 사용하는 영상이 상당부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음. 특히 국제 보도 경우, 오래된 자료화면을 쓰는 경우, 전혀 관계없는 영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보았으며 이럴 경우, 시청자는 오도되거나, 매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 자료화면의 출처와 상황을 자막으로라도 적시하고 국내 뉴스도 타 매체영상인지, 시청자 제공인지, 등도 밝혀주면 좋겠음. 경쟁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준 있는 보도원칙을 지켜서, 전체 영상처리의 수준을 올려가야함. 연합뉴스TV 가 그런 역할을 해 주길 바람(이재경 위원)
- 뉴스화면에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어 화면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자제해서 전체화면을 시원하게 단순화해 뉴스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박동민 위원)

▲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의견

- 사회에는 어두운 뉴스가 너무 많은데 밝고 따뜻한 뉴스도 많이 있을 것임. 이런 발굴하지 못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이태식 위

원장)

- 미래의 시청자 확보를 위해 가칭 '주간대학뉴스'를 편성하는 것은 어떨까함. 대학생 인턴기자들이 자기가 소속된 학교, 혹은 지역사회의 뉴스, 젊은이 발언대 등을 스마트폰 등으로 취재하여 보내면 편집 기자들이 잘 다듬어서 적당한 시간에 방송하는 형식임(우수한 인턴기자들은 취업 시 가산점 혜택), 개국5주년(2016. 12. 1) 특집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50명 &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 50명>, <한국의 스물세 살(=채널 23)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함(주철환 위원)
- 우리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대졸취업임. 앞으로 3년간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임. 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높여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어려운데 연합뉴스TV에서 중소기업의 사장 등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소개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출연시키는 공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좋을 것(박동민 위원)
- 목, 금요일에 편성 방영되는 '북한은 오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시간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예를 들면 현재 방송시간인 저녁 7시와 관련하여, 물론 저녁 8시, 9시 등 계속되는 뉴스시간이 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녁 7시뉴스에 대한 시청자 층도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오늘' 프로그램은 다른 시간대로 옮기고 뉴스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북한은 오늘'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들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계속 시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김상선 위원)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편성조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함(이재경 위원)
-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발상의 전환도 좋을 것 같음.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한다든지 하는 연합뉴스TV의 옴부즈맨 채널이 타사와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주철환 위원)

▲ 앵커, 진행자, 기타의견

- 스타성 앵커의 발굴 및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봄. 간판 스타앵커는 미디어의 권위와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얻는 계기가 됨(이태식 위원장)
- 앵커의 발음에서 방송용이 아닌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복합단어의 경우 단어중 어느 단어에 중점을 뒀는지 유념해서 발음해야함. 발음의 음성이 시청자에게 저항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이태식 위원장)
- 프로그램 진행자의 연령이 많지 않다 보니 시청자입장에서 신뢰도와 뉴스 전달

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타사의 부장급이상이 전달하는 뉴스 전달력이 높아 보임. 경력이 많은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늘린다면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신현택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채널의 안정감이 느껴지며 뉴스의 질(신속, 정확, 공정, 품격), 화면의 구도 등 다 무난하지만 연합뉴스TV만의 특징이 부족함. 뉴스의 본령에 충실하되 경쟁력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화제성'이 필요할 듯함. 연합뉴스TV의 대표 프로그램과 스타성 있는 앵커와 기자를 키워야 함. 그 사람을 보려면 연합뉴스TV를 틀어야 한다는 시청자들이 서서히 생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 외적으로 '스타 만들기 전략팀'이 가동되어야 함. 강한 중독성의 로고음악을 만들어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방송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주철환 위원)
- 9 일 오전 2시 13분 뉴스에서 힘 받은 아베의 꿈 조준영가자의 도쿄리포트의 기자 해설 녹음상태가 일반적 기자리포트 오디오에 비해 쇠소리가 많고 울림이 강해 다른 리포트와 현저히 달라 통일된 오디오상태를 보이지 못해 프로그램 통일성이 떨어지거나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임(박정숙 위원)
- 클릭 베스트컷은 주로 해외소식을 짧게 화면과 함께 소개해주어 다른 뉴스에 비해 흥미를 유발함. 특히 20일 13시 28분의 교황의 특이한 자동차 내용과 연설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려는 손 등 흥미 있었음(정현주 위원)
- . (끝)